

감정에 관한 감수성 이론과 행위의 합리성*

—감정과 아크라시아 문제에 관한 형이상학적 고찰—

양선이**

주제분류 형이상학, 서양근대영국철학, 메타윤리

주요어 감정, 행위의 합리성, 아크라시아, 성향분석론, 공감

요약문

본 연구의 목적은 감정에 대한 철학적 통찰을 통해 인간의 비합리적 행위를 설명함으로써 실천적 합리성 문제를 새롭게 조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제 1장에서는 아크라시아의 문제에 대한 전통적 모델에 도전하는 새로운 모델을 탐색한다. 나는 이러한 모델을 감정에 관한 ‘지각이론’에서 찾고 이러한 모델이 갖는 문제점과 한계를 보이고자 한다.

1장에서 감정과 행위의 합리성에 관한 인식론적 탐구에 초점을 맞춘 후, 제 2장에서 이 논문의 핵심인 형이상학적 접근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나는 가치속성을 색 지각에 비유하는 성향분석론자들의 이론을 행위의 합리성 문제에 적용해 보고 나아가 이러한 이론이 우리의 문제인 아크라시아를 해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본다. 나는 성향분석론자들이 말하는 규범성 또는 합리성의 원천인 “할만하다(merit)”의 의미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제기할 것이다.

끝으로 나는 성향분석론자들의 색 지각과 가치속성의 비유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대안을 흄의 관습적 규약론에서 찾고자 한다.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B5A02029895)

- 이 연구는 2018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1. 들어가는 말

흔히 감정은 비합리적인 것이라 평가되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감정의 표현에 대해 ‘적절하다’,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한다. 이는 곧 감정의 정당화를 따지는 합리성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감정의 합리성 문제는 1) 감정의 적절성과 2) 행위의 이유 설명을 통해 논해질 수 있다. 행위에 대한 이유 설명에서 감정이 미치는 역할에 관한 논의는 소위, ‘아크라시아 문제’와 관련된다.¹⁾ 본 연구에서 필자는 행위의 이유 설명에 있어 감정이 미치는 영향을 형이상학적 관점에서 해명해 보고자 한다.

행위와 관련하여 감정은 이성의 노예이어야만 한다는 전통과 이성이 오히려 정념의 노예이어야만 한다는 두 대립적인 전통이 존재해 왔다. 본 연구에서 나는 이와 같은 이성과 감정의 대립을 실천적 합리성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해소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행위에 있어 이성과 감정의 갈등적 관계를 잘 보여주는 전통적인 주제인 ‘아크라시아’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하는데 있어 최근 감정에 관한 논의가 큰 역할을 한다는 점에 착목하여 행위에 관한 실천적 합리성에 있어 감정의 역할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감정이 아크라시아(의지나약함)를 만들어 낸 다기 보다 오히려 역-아크라시아(inverse akrasia)에 기여한다는 논쟁을 소개함으로써 실천적 합리성의 논의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

많은 사람들은 감정이 아크라시아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감정은 행위자의 합리적 통제를 벗어나서 합리적 목표추구에 부적절하게 개입하기도 하며, 더 나쁜 경우에는 감정은 비합리적 행위로 이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위자에 관한 이와 같은 전통적인 모

1) 필자는 이와 관련된 주제들을 선행연구로 수행해 왔다. 양선이 선행연구 2015, 2017을 참고하시오.

텔에 도전하면서 최근에 어떤 철학자들은 감정을 통해 야기된 아크라시아가 합리적일 수 있다는 주장을 옹호하고 있다. 아펠리(2003)에 따르면 소위 ‘역 아크라시아(inverse akrasia)’라는 경우가 존재한다.²⁾ 역-아크라시아란 행위자가 그의 더 나은 판단에 반해서 행동하는데도 합리적이며 심지어는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들이다. 본 연구에서 필자는 이러한 논증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 1장에서는 아크라시아의 문제에 대한 전통적 모델에 도전하는 새로운 모델을 감정에 관한 ‘지각이론’에서 찾고 이러한 모델이 갖는 문제점과 한계를 보이고자 한다.³⁾ 1장에서 감정과 행위의 합리성에 관한 인식론적 탐구에 초점을 맞춘 후, 제 2장에서 이 논문의 핵심주제인 형이상학적 접근을 시도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나는 가치속성을 색 지각에 비유하는 성향분석론자들의 이론을 행위의 합리성 문제에 적용해 보고 나아가 이러한 이론이 우리의 문제인 아크라시아를 해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본다. 나는 성향분석론자들이 말하는 규범성 또는 합리성의 원천인 “할만하다(merit)”의 의미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제기할 것이다. 끝으로 나는 성향분석론자들의 색 지각과 가치속성의 비유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대안을 흠의 관습적 규약론에서 찾고자 한다.

2. 감정, 지각 그리고 행위의 합리성

실천적 합리성을 설명할 때 감정의 역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감정은 인지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추론과 관련된 판단은 아니고 비추론적이라는 점에서 지각과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입장에 동의할 것이다. 먼저 감정은 지향적 대상의 평가와 관련된다는

2) Nomi Arpaly(2003).

3) 필자는 선행연구(2015)에서 아크라시아 문제를 지각이론을 통해 해명하고자 한 바 있다.

점에서 평가적 지각이라는 이론을 검토하겠다. 나아가 이러한 이론이 아크라시아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보이겠다.

감정은 지각적 상태와 유사하지만 비추론적 평가적 지각 상태로 볼 필요가 있다. 나는 감정을 비추론적 평가적 지각과 유사한 상태로 보는 뒤링(2009)의 입장을 수용해서 행위에 대한 이유 설명과 전통적으로 실천적 비합리성의 전형적 예로 간주되는 아크라시아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용해 보겠다.⁴⁾ 이를 위해 우선 감정에 토대를 둔 의지나약함의 문제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을 택하기로 하겠다.⁵⁾

허클베리 핀은 노예상태에서 도망쳐 온 그의 친구 짐을 도운 후에 그

4) 필자가 여기서 언급하는 전통적인 의미의 아크라시아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아크라시아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단적인(genuine) 아크라시아”와 “유사성에 의해서만 아크라시아(Akrasia by resemblance)”라 불리는 것을 구별하고 단적인 아크라시아는 육체적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지나치게 관심을 가짐으로써 생긴다고 주장한다(Aristotle(1985), (1148a5-12)). “유사성에 의한” 아크라시아는 감정에 의해서이거나 그 자체로 선택할 가치가 있는 것들- 부, 승리, 이득, 명예-에 지나치게 강하게 욕망을 느낀 탓에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것은 그 자체로 육체적 욕구(appetite)에 의해 생기는 아크라시아와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Aristotle (1147b24-33, 1148a23-b14)).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유사성에 의한 아크라시아는 비난받을만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과도하게 추구하는 것은 좋은 것이거나 추구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이유와 상충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유사성에 의한 아크라시아’를 고려하면 모든 경우의 아크라시아가 다 이성과 육체적인 욕구와의 갈등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맥킨타이어는 육체적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아크라시아는 합리성과 무관한 또는 비합리적 동기의 원천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McIntyre(1990), 383쪽). 나아가 맥킨타이어는 쾌락을 좇는 욕구 때문에 생긴 ‘단적인 아크라시아’는 이유에 관한 설명력을 갖지 못하지만, 감정 때문에 생긴 아크라시아는 이유에 관한 설명력을 갖는다고 주장한다(McIntyre(1990), 383-384쪽).

5) 최근에 많은 철학자들은 이 주제에 관한 사례로 ‘허클베리 핀’을 택하고 있다. Jonathan Bennett(1974), R. de Sousa(1987), A. McIntyre(1990), K. Jones(2003), C. Tappolet(2003).

를 되돌려 주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허클베리 핀은 정작 짐을 돌려 줄 기회가 왔을 때, 짐을 숨겨주는 것이 옳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짐을 노예 사냥꾼에게 돌려주는 대신 그의 친구 짐을 보호하기 위해 그는 거짓말을 하게 된다. 혁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짐에 대한 그의 연민(sympathy) 때문이다. 설령 그가 그의 감정을 정당화하지 못하고 그의 의지 나약함에 대해 그 스스로를 비판할지라도 그의 연민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아펠리에 따르면, 여기서 우리는 완전한 ‘역 아크라시아(inverse-akrasia)’를 발견한다. 허클베리 핀의 저자인 마크 트웨인은 독자들에게 무엇을 전하려 했을까? 즉 그는 허클베리 핀이 실제로 옳은 일을 했고 심지어 그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칭찬받을 만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을 것이다. 이러한 사례가 소위 ‘역-아크라시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주장한다.

맥킨타이어에 따르면, 허클베리 핀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즉, 만일 의지나약(akrasia, 자제력 없음)이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최선의 이유’라고 믿는 것과 그가 행위를 하는 진짜 이유 사이의 갈등으로 정의된다면, 의지나약적 행위는 합리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때때로 최선의 이유라고 믿었던 것도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고 나서 반성해 보면 그러한 믿음은 틀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혁은 시대를 초월한 일반적인 도덕 원리와 비합리적인 감정 충동 사이의 딜레마에 빠진 것이 아니다. 혁이 의지나약하긴 하지만 비합리적이라고 볼 필요가 없는데, 그 이유는 그가 실제로 한 일은 그의 실제적 가치와 비일관적인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가치라고 잘못 믿은 것과 비일관적인 것뿐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의지나약적 행위가 자신의 관점에서는 옳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행위의 합리성은 평가적 일관성이라 할 수 있다. 행위가 의지나약인 경우에도 평가적 일관성을 얻을 수 있다. 만일 혁이 시간이 지난 후 성찰할 시간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는 행동을 바꿈으로써가 아니라 평가를

바꿈으로써 의지나약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맥킨타이어는 주장한다.⁶⁾ 즉 세월이 흐른 후 노예가 타인의 소유물이 더 이상 아닌 세상에서 혁이 자신이 그 때 친구 짐을 숨겨준 것에 대해 자책했던 것과 달리 오히려 자신의 행위가 잘한 것이라고 평가하게 될 것이다.

의지나약에 대한 이와 같은 새로운 해석을 바탕으로 나는 되링의 지각이론을 이용해 아크라시아 문제를 해명하고자 한다. 많은 사람들은 감정의 합리성은 판단주의 모델을 통해 파악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⁷⁾ 흄은 이에 관한 좋은 예를 제시했다. 당신이 판단으로는 아주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높은 곳에서 그 곳을 위협하게 표상하고 추락에 대한 공포에 떨고 있을 수 있다. 감정과 판단의 이와 같은 모순은 이해가능하며 아주 종종 발생한다. 그것은 병리학적인 현기증일 필요가 없으며, 일상인의 일상적 경험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만일 모순이 가능하려면 당신은 안전하다고 판단하면서(P) 동시에(&) 위험하다고 판단하는(-P) 경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당신이 안전하다고 판단하면서 동시에 공포를 느끼는 것, 즉 그 상황을 위험하다고 경험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되링은 감정을 판단과 예비하기보다 지각과 예비하자고 제안한다.⁸⁾ 필러 레이어 선과 같은 지각적 환영을 고려해 보자. 앞서 말한 흄의 경우, 행위자의 더 나은 판단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자는 자신을 위험 속에 있다고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필러 레이어 착시의 경우, 두 선을 지각하는 자는 두 선의 길이를 다른 선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론적으로 학습하게 되면 그 두 선이 사실은 같은 선이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으면서도 말이다. 감정-판단의 모순처럼, 지각-판단의 모순의 경우도 그 상황을 잘못되게

6) McIntyre(1990), 390쪽.

7) 예: de Sousa (1987); Greenspan(1988) ; Roberts(1988) ; Goldie (2000); Tappolet (2000); Helm (2001); Prinz (2004).

8) Döring(2009), 293쪽.

만드는 것이 지각일 필요는 없다. 짐에 대한 혁의 연민처럼, 행위자의 더 나은 판단과 갈등상황에 있는 지각이 환영일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되링은 모순 없는 갈등의 가능성을 소개한다.⁹⁾ 그렇다면 ‘모순 없는 갈등’이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어떤 행위자가 그 자신의 더 나은 판단(모든 것을 고려한 판단 *all things considered judgment*)에도 불구하고 그에 반하는 어떤 감정이 여전히 지속할 때인데, 이 때 우리는 감정과 판단은 모순 없는 갈등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감정에 관한 인지주의자인 되링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감정은 어느 정도는 행위자의 판단에 의해 통제 불가능하게 일어나야만 하고 행위자의 더 나은 판단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⁰⁾ 이러한 것이 정확히 허클베리 핀의 경우에 일어난 일이라고 되링은 분석한다.¹¹⁾ 왜냐하면 혁은 짐을 돌려보내야만 한다는 더 나은 판단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짐에 대한 그의 연민은 지속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만일 이러한 것이 갈등이었다면, 되링은 긍정적인 갈등이라고 분석한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혁은 새롭고 더 나은 이유를 통해 그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럼으로써 그 이유에 의해 그의 행위를 인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되링은 감정을 배제한 채 이성 홀로 행위를 인도할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그는 오로지 전지전능한 자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되링은 갈등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감정을 지각과 유비하는 지각 모델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밀러 레이어 선과 같은 지각적 환상은 판단과 갈등을 일으키더라도 모순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말하자면, ‘그 두 선은 동일한 길이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다르게 본다. 나는 한 선을

9) Döring, Ibid., 294쪽.

10) Döring(2009), 297쪽.

11) Döring, Ibid.

다른 선 보다 더 길게 본다.’ 동일한 방식으로, 혁의 더 나은 판단이 짐을 돌려보내야만 한다는 것일지라도, 혁의 연민은 지속될 수 있고 짐은 연민 받고 보호할 만하다(merit)고 표상할 수 있다. 혁이 짐을 돌려보내야만 한다고 판단하면서 동시에 짐에게 연민을 느끼는 것은 모순이 아니라 되링은 주장한다.

나는 여기서 되링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그가 말하는 지각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더 자세히 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에 따르면 감정은 추론적 관계에 연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판단과 달리 지각과 유사하다. 이러한 점에서 되링은 감정적 상태의 내용은 추론적 판단의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한다.¹²⁾ 다시 말하면 감정은 팀 크레인(Tim Crane)이 주장한 것처럼, 비개념적 내용(non-conceptual content)이다.¹³⁾ 되링은 크레인이 “개념들은 지향적 상태와 추론적으로 관련 있는 내용들이라고 가정하면서 비추론적 지각을 비개념적”이라고 정의한 것을 받아들여, 감정과 지각은 둘 다 비개념적 내용을 갖는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감정과 지각이 그 내용에 있어 비개념적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되링은 그 둘의 차이점이 행위에 있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 차이점은 감정은 그들의 지향적 대상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그들의 대상을 주체의 관심의 견지에서 표상하기에 그것은 행위에 대한 동기력을 갖는다. 밀러 레이어 선의 착시의 경우 지각자의 더 나은 판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착각은 교정이 불가능한 반면, 허클베리 핀은 그의 감정이 적절하건 적절하지 않건 간에 짐에 관한 연민 때문에 행동을 취할 각오가 되어 있다. 이처럼 감정은 그것이 평가를 포함하기 때문에 합리적 행위에 관한 규범적 이유들에 영향을 미친다.

12) Döring, Ibid., 298쪽.

13) Tim Crane(1992), 147쪽.

3. 감정에 관한 감수성 이론과 행위의 합리성 - 감정과 아크라시아 문제에 관한 형이상학적 고찰

앞장에서 나는 실천적 이유를 찾는데 있어 감정이 행위의 동기가 된다는 사실을 확립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때 감정은 판단도 아니고, 비인지적 느낌도 아닌 비추론적 지각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보이려고 했으며, 이를 통해 판단(믿음)과 행위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를 시도했다. 이 장에서 나는 이를 바탕으로 실천적 이유와 관련하여 이유 설명에 있어 “왜냐하면(because)”의 의미를 먼저 분석할 것이다.

행위에 관한 이유 설명에서 “왜냐하면”을 통해 우리의 문제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즉 혁은 노예사냥꾼에 대항해서 짐을 보호했다. “왜냐하면” 혁은 짐에 대해 연민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호하다. 여기서 “왜냐하면”은 단지 인과적인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행위에 관한 합리적 설명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을 행위에 관한 합리적 설명이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즉 혁이 짐을 보호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짐을 향한 혁의 연민은 적어도 어떤 정보를 말해야만 한다. 존 맥도웰 식으로 말하자면, 짐은 궁지에 몰려 있었고, 그의 상태는 혁의 연민을 받을 만하다(*merits*). 여기서 우리는 규범성 또는 합리성의 원천인 “할만하다(*merit*)”의 의미를 따져 보아야만 한다. 이 장에서 나는 이러한 형이상학적 개념의 분석에 착목하고자 한다.

“할만하다”는 개념은 색 지각과 가치 속성을 비유하는 성향분석론자들에게 의해 제시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는 앞장에서 살펴 본 감정을 비개념적 평가적 지각과 유사한 형태로 본 되림과 다른 노선에서 행위의 이유 설명을 검토해 보겠다. 즉 이 장에서는 가치 속성을 지각과 유비하는 형이상학자들의 이론을 검토하겠다.

2장에서 우리는 감정도 지각과 유사한 상태라 결론을 내렸다. 이제 이장에서 여기에 성향이론을 받아들이면, 성향이론가들도 성향을 지각적 속성에 유비하기 때문에 성향 속성과 감정 속성을 비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각으로서의 감정이론이 아크라시아 문제를 어떻게 해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성향이론가들에 따르면 가치적 속성은 색 지각과 유사하다. 맥도웰에 따르면, 만일 우리가 예를 들어 색과 같은 이차성질들을 성향이론에 입각해서 본다면, 예를 들어, 색깔의 경우에 우리는 어떤 종류의 시각경험을 야기하는 성향(disposition)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해야만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이 갖는 도덕적 성질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종류의 특이한 경험을 야기하는 어떤 종류의 성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야 한다. 도덕의 경우에 있어 **선행**이라는 것은 관찰자들로 하여금 선한 것들에 대해 도덕적 승인이라는 반응을 야기하는 성향이라 볼 수 있다.¹⁴⁾ “**선행**”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승인이라는 결과를 낼 때 오직 그때만 그것이 선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차성질 중 특별히 색깔과 도덕적 가치를 비유함으로써 성향 분석 이론가들이 목표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에 답하기 위해 신감성론자들(neo-sentimentalists)의 입장을 통해 살펴 보기로 하자.

존 맥도웰(John McDowell)과 같은 도덕 실재론자들은 ‘오류이론’과 ‘투사이론’의 핵심적 주장을 반박하고 이에 대한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오류이론과 투사이론의 핵심적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치는 인간이나, 행위나, 사태의 참된 특징이 아니라 단지 그렇게 보일 뿐인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가적 반응이 갖는 특징을 사태의 특징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¹⁵⁾ 맥도웰은 투사이론을 비판하면서 ‘투사’의 은유 대신 평가적 지식과 색 지각에 관한 지식을 비유할 것을 제안한다. 그에 따르

14) John McDowell (1985), 118쪽.

15) 나는 오류이론과 투사이론을 다음 장에서 상세히 다루겠다.

면 평가적 태도나 의지의 상태는 색 경험과 유사하다. 가치 경험에 대한 관념은 빨강에 대한 경험과 아주 유사하다는 의미에서 본질적으로 주관적이다.

그렇다면 이차성질과 특별히 색깔과의 비유를 통해서 성향 분석 이론가들이 목표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을 위해서 비유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비유 이론가들이 색깔의 개념을 도입할 때 그러한 것은 소위 말하는 ‘성향적(dispositional)’ 개념이다. 우리는 마크 존스톤(Mark Johnston)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공식화할 수 있다.

‘X는 정상적 지각자들이 실제로 정상적인 조건 하에 있을 때 정상적인 지각자들에게 그러그러하게 보이도록 배열 될 때 오직 그때에 만 빨강다.’¹⁶⁾

만일 우리가 맥도웰에 의해 제시된 바대로 색, 맛, 소리, 냄새와 같은 이차성질을 성향적인 것으로 간주한다면 어떤 대상, 예를 들어, 색은 어떤 종류의 시각 경험을 야기하려는 성향에 존재한다고 생각해야만 한다. 따라서 색에 관한 성향 이론에 따르면 ‘붉음’은 어떤 지각자들에게 붉게 보이는데 존재한다. 맥도웰은 이와 같은 경우를 도덕의 경우에도 적용하려고 한다. 어떤 상황이 갖고 있는 도덕적 성질은 대체로 어떤 종류의 특별한 경험을 야기하고자 하는 성향이다. 예를 들어, “선함은 선한 것에 대해 관찰자들에게 도덕적 是認의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성향에 존재한다. 따라서 善이라는 것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是認의 감정을 산출할 때 오직 그때만 어떤 것에 적용된다.”¹⁷⁾

콜린 매킨(Collin McGinn)은 이차성질과 도덕적 가치의 비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차성질 술어가 그것의 만족 조건들의 부분

16) Mark Johnston(1989), 140쪽

17) Collin McGinn(1983), 147쪽

으로서 감각 상태를 갖듯이 도덕적 술어도 그들의 만족 조건들의 부분으로서 정서적이고 평가적인 상태를 갖는다. 따라서 어떤 대상이 도덕적 성질을 갖는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게(appropriate) 구성된 존재들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심리적 반응에 본질적으로 의존하게 될 것이다.¹⁸⁾ 달리 말하면, 어떤 대상이 정상적인 빛의 조건에서 정상적인 관찰자에게 붉게 보이면 그 대상은 붉은 것처럼, 도덕적 속성들도 이와 유사하다. 즉, 도덕적 판단을 할 때, 우리는 “만일 다른 사람도 적절한 상태에 있고 적절한 상황에서 도덕 판단을 하게 된다면 그들도 우리와 도덕적 태도를 공유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적절한 상태”와 “적절한 상황”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데이비드 맥나톤(David McNaughton)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만일 올바르게 기능하는 시력을 갖고 있고 적절한 조건에서 그 대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참된 색깔들 속에서 사물을 보게 될 것처럼, 내가 하는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에 관해 내가 충분히 알고 있고 나의 견해가 편견으로 왜곡되지 않을 때 나의 도덕적 감정들은 신빙성이 있다.”¹⁹⁾

그렇다면 감정을 이차성질인 색 지각과 유비하는 이들은 우리의 문제, 즉 아크라시아 문제를 어떻게 해명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 나는 먼저 성향분석론자들이 색 지각과 가치속성을 비유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맥도웰 자신도 지적했듯이, 색 지각과 가치 속성은 비유가 안 되는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덕이나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적절한 (승인)의 반응을 일으키게끔(elicit) 하는 것이라 볼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원래 그와 같은 태도를 일으킬 만한(merit) 것이라고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²⁰⁾

18) McGinn, Ibid.

19) David McNaughton(1988), 73쪽

20) McDowell(1985), 143쪽.

즉, 색지각의 경우 이차성질인 색을 '일으키는(eliciting)'의 의미는 사물이나 사태와 인식주관과의 인과적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진 반면, '할만하다 meriting'는 실제로 반응이 일어나건 않건 간에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을 전제하고 그에 대해 우리가 그에 대한 반응을 해야만 하는 규범적인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노예 사냥꾼으로부터 짐을 보호하는 것은 합리적일 수도 있다. 여기서 되링은 규범성 또는 합리성을 “할만하다 (merit)”고 보지 않으면, 즉 짐이 연민을 받을 만하다고 보지 않으면, 혁의 연민은 단순히 맹목적 선동자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고, 혁이 그의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서 마약을 복용하는 것도 동일하게 합리적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²¹⁾ 그러나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그에 대해 반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맥도웰은 직관에 호소하면서 직관주의를 택한다.

위긴스는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 감정적 반응(예를 들어, amusement, shame)과 그것들과 연관된 개념들(funny, shameful)은 그러한 반응과 속성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공진화(coevolution)를 통해 상호조정(mutually adjusted)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즉 그에 따르면 평가적 속성들과 관련된 반응들은 서로에게 안성맞춤 격으로 되어 있다(made for each other). 왜냐하면 속성은 그에 맞는 반응과 본질적 연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속성은 특정 조건하에서 특정한 감정을 일으키는 탓에 존재한다. 속성은 그 징표(marks)를 갖고 있고 우리는 그것들에 맞는 반응을 통해 그런 특징을 발견한다. 이런 의미에서 위긴스는 자신의 이론이 직관주의와 주관주의를 합친 ‘지각 있는 주관주의(sensible subjectivism)’라 주장한다.²²⁾

한편 위긴스의 이론은 속성에 관한 ‘반응의존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속성에 관한 반응의존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속성의 객관

21) Döring(2009), 291쪽.

22) Wiggins(1987) 참조.

성은 우리의 반응의 보편성을 통해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적 레퍼토리(repertoire)는 서로 다를 수 있고 또 우리의 실제 반응들은 상황에 따라 특수할 수 있기 때문에 반응 의존 이론은 감정적 반응의 보편성을 설명하는데 있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사정은 색 지각과 가치 속성을 비유하는 성향분석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즉 그들은 시각 지각에 관해 일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정상적인 도덕 존재자들은 유사한 도덕 판단들을 한다고 말 할 수 있을까? 흄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답을 내려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공감에 근거한 도덕 판단은 공평무사한 관점을 지키기가 어렵고, 따라서 도덕 판단에 있어서 완전한 일치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즉 왜곡되지 않은 도덕적 경험을 하는 경우는 색깔을 정확하게 보는 경우보다 훨씬 드물다. 대부분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色感을 가지고 이상적인 빛 조건을 구성하는 밝음 속에 살기 때문에 사물이 갖는 색깔에 대한 우리의 지각은 일반적으로 정확하다. 그러나 도덕을 말할 경우, 인간은 편견과 자기 자신에게로 치우침과 같은 왜곡된 어떤 요인들을 가지고 있어서 “완전히 공평무사하게 共感적인 관망자”인 관점을 취하기란 어렵다.²³⁾

색깔 인식의 경우와 도덕의 경우 또 다른 차이점은 도덕의 경우에 있어 우리는 어떤 사람의 도덕적 반응이 우리 보다 더 우월한 그런 ‘이상적 존재(ideal being)’의 개념을 갖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들은 우리 자신보다 도덕적 반응이 훨씬 우월한 어떤 이상적 존재 때문에 도덕적 진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상화” 노선을 택한다면, 그 이상적 주체의 반응을 가늠하여 일상인들이 규범적 가이드를 받을 가능성은 사라진다. 그렇다면 이상화 노선에 의존하는 성향분석이론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것이 될 수 있는가? 나는 흄의 ‘관습적

23) McNaughton(1988), 73쪽.

규약이론을 그 대안으로 택하고자 한다. 우리는 일상적 담론에서처럼 도덕적 담론에서도 ‘일반적 관점’을 취함으로써 공감적 반응을 규제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덕과 부덕에 관한 표준에 도달할 수 있다.

앞서 제기된 반응의 보편성 문제에 대해 위긴스는 중용을 가진 인간의 반응에서 찾는 것 같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순환론의 문제에 빠지게 된다. 중용적 인간의 연민은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게, 무엇에 대해, 얼마 동안 연민을 느껴야 하는지를 알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의 연민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다음과 같은 질문이 가능하다. 중용적 인간이란 어떤 사람인가? 중용적 인간이란 중용적 인간이 하게 될 방식으로 반응하게 되는 인간이라고 답하게 되면 순환론에 빠지게 된다. 나는 순환론에 벗어나는 방안으로 중용적 인간은 외적 규범(external norm)에 즉 관습적 규약에 따라 수양과 연마를 통해 경험을 습관화하여 공감을 느끼는 자라고 제안하고자 한다.

4. 투사주의와 아크라시아 문제

지금까지 우리는 감수성(sentiment)이 어떻게 가치에 개입될 수 있는지에 관해 가치를 색 지각에 비유하는 성향분석론자들의 지각주의(perceptivism)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가치를 색 지각에 비유하는 또 다른 이론으로써 투사주의(projectivism)를 살펴보고 이러한 입장이 우리의 문제인 아크라시아 문제를 해명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먼저 가치와 색깔의 비유에 관한 흄의 주장을 살펴보기로 하자. 흄은 그와 같은 비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따라서 덕과 부덕은 소리, 색깔, 뜨거움과 차가움에 비교되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근세 철학자들은 그와 같은 성질들이 대상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지각들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도덕에 있어서 이와 같은 발견을 물리학에서의 발견과 마찬가지로 사변적 학문의 상당한 진보라고 간주했다.²⁴⁾

가치가 세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존재한다는 흄의 입장을 우리는 투사주의라 부를 수 있다.

흄은 우리가 가치, 즉 덕과 부덕을 지각한다는 생각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다.

부덕하다고 인정된 행동, 예를 들어, 고의적인 살인의 경우를 살펴 보자[……]. 당신이 자신의 가슴으로 그 행동에 대해 반성하며(turn your reflexion into your won breast) 당신에게 발생하는 불승인(disapprobation)의 감정을 발견할 때까지, 당신은 결코 이 부덕을 발견할 수 없다. 여기에 사실(matter of fact)이 있지만, 이 사실은 느낌의 대상이지 이성의 대상은 아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당신 자신에게 있는 것이지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²⁵⁾

가치 평가에 있어 우리의 감성(sentiment)이 어떻게 개입하는가에 대해 투사주의와 반대되는 이론으로서는 객관주의(objectivism)를 들 수 있다. 객관주의 또는 물리주의에 따르면, 색깔은 표면이 갖는 미세물리적 성질이다. 그것들은 우리 인간의 색 경험과 어떤 관련도 없는 물질적 대상이 갖는 객관적 성질이다. 물론, 초록색은 적절한 빛의 조건하에서 정상적인 인간들에게 친근한 방식으로 보이는 경향이 있다. 색 경험은 색깔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민감성의 형식으로 인식적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주의자들에 따르면, 우리가 “초록색깔”에 붙이는 그 속성은 반응 독립적인 미시 물리적 속성이다.

24) D. Hume(1978), 469쪽.

25) Hume, Ibid., 469쪽.

이와 유사하게, 가치에 관한 객관주의자들은 평가적 속성들은 주관의 감성적 반응과 어떤 관련도 없는 객관적 성질들이라고 주장한다. 색깔이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감성도 그 가치에 얼마나 민감하느냐에 따라 인식적으로 정당한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객관주의자들은 왜 우리의 감성이 다소 우연히 신빙성 있게 가치를 추적하게 되는지를 설명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 이론 내에서 타당하게 만들기는 쉽지 않다. 객관주의에 관한 전통적 형태는 ‘직관주의’라고 불리는 입장인데,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우리는 도덕감이라는 능력이나 합리적 직관을 가지고 가치를 지각하거나 가치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맥도웰에 따르면 이와 같은 객관주의는 가치 인식을 신비화시키는 것이다.²⁶⁾

이상과 같은 객관주의는 흄에 의해 제안된 투사주의와 대조를 이루는 입장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흄에 따르면, 아름다움이나, 가치와 같은 것은 외부 대상이 갖는 성질들이 아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세계로 확산해 나간 “투사물”에 불과하다. 여기서 지각과 마찬가지로 투사 또한 은유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완전히 빈 스크린 위에 사진 이미지를 쓰는 슬라이드 프로젝트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때 이 이미지는 스크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아니다. 색깔에 관한 투사주의를 고려해 보자.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색깔은 대상들이 갖는 속성이 아니다. 풀잎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은 무색의 외부 세계에 투사된 우리 시야의 특성이므로, 우리의 색깔 판단은 흄이 제안했듯이 체계적으로 오류이다. 즉 우리는 사실은 (초록색의 외형으로) 오직 우리의 마음에만 있는 속성(초록색)을 어떤 대상(풀잎)이 가진 속성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유사하게, 투사주의에 따르면, 평가적 판단은 흄이 말하듯이, “내적 감정으로부터 빌려온 색깔을 가지고 자연적 대상에 그 색을 덮어씌우거나 채색한다.”²⁷⁾

26) McDowell(1985), 132쪽.

27) Hume(1975), 294쪽.

투사주의에 따르면 우리는 그 자체로는 옳고 그름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지 않는 세계에 우리의 비인지적 느낌을 투사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비인지적 느낌의 옳고 그름은 그와 같은 느낌에 대해 행위자의 승인 불승인이라는 고차 태도(higher-order attitude)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재미(amusement)에 대한 고차태도는 재미있는 또는 ‘웃기는(funny)’이 될 테고, 수치(shame)에 대한 고차태도는 ‘수치스러운(shameful)’, 그리고 도덕적 분노(moral indignation)에 대한 고차태도는 ‘옳지 않은’으로 우리가 취하는 태도가 될 것이다.

우리가 흄의 이론을 투사주의로 해석하면 흄의 이론은 아크라시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투사주의는 ‘옳음’이 1차적 감정에 대한 고차태도에서 생기기 때문에 갈등 상황이 감정과 그의 더 나은 판단 사이에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아크라시아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흄의 도덕 감정론에서 공감의 역할과 관습적 규약을 역할을 잘 해명하면 아크라시아 문제의 해명에 빛을 던져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흄의 관점에서 보면 앞서 살펴 본 우리의 문제인 혁의 상황이 아크라시아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칸트주의 관점에서 보면 혁이 그의 ‘모든 것을 고려한 판단’에 의거했을 때 짐을 돌려보내야만 하지만, 즉 짐에 대한 연민 때문에 돌려보내지 않는 것은 의지 나약함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흄의 동기 이론에 따르면 ‘모든 것을 고려한 판단’에 해당하는 믿음 또는 이성엔 행위에 있어 ‘무력(inert)’하다. 왜냐하면 행위의 동기력은 정념 또는 욕망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덕적 동기의 경우 흄은 ‘일반적 관점’을 따라 연민을 느껴야 한다고 말하므로 ‘아크라시아’의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도덕적 동기와 관련하여 혁의 경우는 아크라시아이긴 하지만 합리적이며 심지어 도덕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역-아크라시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이 허클베리 핀의 사례에서 보여주는 바 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주장한다.²⁸⁾

5. 결론

이렇듯 흠의 경우에는 행위에 있어 이성인 ‘무력’하기 때문에 행위자의 행위의 동기력은 정념, 즉 우리의 경우에는 혁의 연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혹자는 여기서 자신의 친구인 짐에 대한 혁의 연민이 강력한 동기화의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다른 경쟁적인 동기화의 요인을 무력화시킬 정도로 강력하지는 않기 때문에 혁이 자신의 친구인 짐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할지 그러지 말아야 할지 갈등을 일으켰다고 주장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 경우 더 나은 판단의 동기 유발력과 다른 동기화 요인(혁의 상황에서는 친구인 짐에 대한 연민)의 동기 유발력 간의 경쟁과 갈등 때문에 아크라시아가 발생한다고 주장할지도 모르겠다.²⁸⁾ 그러나 도덕적 동기와 관련하여 혁의 경우는 아크라시아이긴 하지만 혁의 연민, 즉 감정 때문에 곤경에 빠진 친구를 구하게 되었으므로 더 좋은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며 심지어 도덕적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아펠리(Nomi Arpaly)가 지적했듯이, 완전한 ‘역-아크라시아’를 발견한다. 혁클베리 핀의 저자 마크 트웨인은 혁클베리 핀이 실제로 옳은 일을 했다는 것 그리고 심지어 그의 행위에 대해 도덕적으로 칭찬받을 만하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하여금 믿게 만든다. 우리는 감정이 행위의 동기력을 갖는다고 본 흠의 입장을 받아들이면 흠의 입장에서도 ‘역-아크라시아’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이 혁클베리 핀의 사례에서 보여주는 바 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주장한다.

감정이 개입한 아크라시아가 역-아크라시아라고 해서 **모든 경우의 아크라시아가 다 합리적이고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흠은 감정의 교정을 제안했고 감정이 교정되기 힘든 경우 차선책으로

28) Jonathan Bennett(1974), R. de Sousa(1987), A. McIntyre(1990), K. Jones(2003), C. Tappolet(2003)

29) 이 문제를 제기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언어의 교정’을 제안했다. 언어의 교정은 타인과 우리의 감정적 대응을 조율함으로써 사회적 합의에 이르게 하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 때 언어는 대화, 담론, 교육, 훈육 등 넓은 것을 포함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즉 언어의 교정을 통해 보다 넓은 서클로 확대될 때 우리는 교정된 감성을 갖게 될 것이다. 혁의 연민이 단순히 주관적이지 않고 적절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자신이 2차레벨의 감성(sentiment), 즉 ‘반성(reflection)’³⁰⁾을 통해 그의 연민에 대해 승인했다는 점, 그리고 타인들로부터 승인의 감정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언어의 교정’을 통해 보다 넓은 서클로 확대해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결국 흠의 모델을 우리의 주제에 적용하면 혁이 짐을 돌려보내야만 한다는 ‘모든 것을 고려한 판단(all things considered judgment)’에도 불구하고 짐에 대한 혁의 ‘연민은 지속’될 수 있다. 연민이 지속될 때 혁은 그것의 승인을 위해 ‘반성’을 통해 ‘일반적 관점’을 따를지 갈등을 겪을 지도 모른다. 그러다가 결국 그가 연민을 승인하게 된다면 이 때 그가 사용한 ‘반성’은 2차 레벨의 ‘감성(sentiment)’과 같은 의미이며, 흠에 따르면 ‘감성’은 습관과 훈련을 통해 형성된 ‘성격적 성향’이다.

30) 흠은 ‘감성(sentiment)’과 ‘반성(reflection)’을 상호교환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양선이(2014)를 참고하시오.

참고문헌

- 마크 트웨인 원작. 마이클 패트릭 히언 주석. 2010. 『주석달인 허클베리 핀』, 박중서 옮김. 현대문학.
- 양선이(2011), 「공감의 윤리와 도덕규범: 흄의 감성주의와 관습적 규약」, 『철학연구』 제 95집: 153-179.
- 양선이(2013), 「감정에 관한 지각이론은 양가감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인간 환경 미래』. 제 11호.
- 양선이(2014), 「흄의 도덕감정론에 나타난 반성개념의 역할과 도덕감정의 합리성 문제」, 『철학』: 55-87.
- 양선이(2015), 「감정, 지각 그리고 행위의 합리성: 감정과 아크라시아에 관한 인식론적 고찰」, 『철학연구』 제 108집: 231-257.
- 양선이(2015), 「흄 도덕이론의 덕윤리적 조명」, 『철학』 제 123집: 47-69.
- 양선이(2016), 「허치슨, 흄,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에 나타난 공감의 역할과 도덕의 규범성」, 『철학연구』 제 114집: 305-335.
- 양선이(2017), 「흄의 공감이론의 관점에서 본 아크라시아 문제: 메타윤리적 접근」, 『철학탐구』 49집: 139-165.
- Aristotle (1985), *Nicomachean Ethics*. Trans. by T. Irwin. Indianapolis, IN: Hackett.
- Arpaly, Nomi (2003), “On Acting Really Against One’s Best Judgement.” *Ethics* 110: 488-513.
- Bennett, Jonathan (1974), “The Conscience of Huckleberry Finn.” *Philosophy* 49: 123-34.
- Blackburn, Simon (1993), “Errors and the Phenomenology of Value” in Honderich (ed.) *Morality and Objectivity: a tribute to J. Mackie*, Routledge.
- Blackburn, Simon (1981), “Non-Cognitivism and Rule-Following” in Holtzman

- & Leich, eds., *Wittgenstein: to Follow a Rule*, Routledge.
- Crane, Tim (1992), "The Non-Conceptual Content of Experience." In T. Crane, ed. *Contents of Experience: Essays on Percep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öring, S. (2009), "Why be Emotional?" in P. Goldie, ed. *The Oxford Handbook of Philosophy of Emo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Hume, David (1975), *Enquiries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and Concerning the Principles of Morals*, ed. by L.A. Selby-Bigge. 3rd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ume, David (1978), *A Treatise of Human Nature*, ed by L.A. Selby-Bigge. 2nd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Jones, Karen (2003), "Emotion, Weakness of Will and the Normative Conception of Agency." In A. Hatzimoysis, ed. *Philosophy and the Emo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ohnston, Mark (1989), "ispositional Theory of Value."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supplementary volume.
- Mickie, John (1977), *Ethics: Inventing Right and Wrong*, Viking Press.
- McDowell, John (1985), "Value and Secondary Qualities" in Honderich (ed.) *Morality and Objectivity: a tribute to J. Mackie*, Routledge.
- McGinn, Collin (1983), *The Subjective Vie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cIntyre, A. (1990), "Is Akratic Action Always Irrational?" In O. Flanagan and A. Rorty. ed. *Identity, Character and Morality: Essays in Moral Psych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Mass.: MIT Press.
- McNaughton, David (1988), *Moral Vision*, Basil Blackwell.
- Prinz, J. (2007), *The Emotional Construction of Morals*, Oxford University Press.

- Prinz, J. (2010), “For Valence”, *Emotion Review*: 5-13.
- Sayre-McCord, G (1994), “ ‘General Point of View’ Isn't Idea—and Shouldn't be”, *Social Philosophy &Policy* 11.
- Tappolet, C (2003), *Weakness of Will and Practical Irrationality*. S. Sarah & C. Tappolet. ed. Oxford: Clarendon Press.
- Wiggins, D (1987), “A Sensible Subjectivism”, in *Needs, values, Truth: Essays in the Philosophy of Valu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Wright, Crispin (1988), “Moral Values, Projection and Secondary Qualities.”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supp. vol. LXII.

**Sensitivity Theory on Emotion and
The Rationality of Action**
—A Metaphysical Approach on Emotion and
the Problem of Akrasia—

Sunny Yang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illuminate the problem of practical rationality by explaining human irrational action through philosophical insights on emotion.

In Chapter 1 of this paper, I try to find a new model challenging the traditional model of the problem of Akrasia in 'perceptual theory' of emotions and to show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these models.

After focusing on epistemological inquiry into the rationality of emotions and behavior in Chapter 1, I attempt a metaphysical approach as the central theme of this paper in Chapter 2. To do this, I apply the theory of dispositional analysts, which compare value to color perception, to the problem of rationality of action, and examine whether this theory can explain our problem, Akrasia. I analyze the meaning of "merit" which is the source of normativity or rationality and raise a problem.

Finally, I raise a problem of the analogy between the color perception and value, and find the alternative in Hume 's convention theory.

Key words: Emotion, the Rationality of Emotion, Akrasia, Dispositional Analysis, Sympathy

감정에 관한 감수성 이론과 행위의 합리성 / 양선이

양선이 E-mail: sunnyyang@hotmail.com

투 고 일	2018년 04월 14일
심 사 일	2018년 04월 30일
계재확정	2018년 05월 22일